

#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명... 논란 지속

### “이태원, 예년 수준 인파... 경찰 인력 미리 배치해 해결될 문제 아니었다” 발언 시민사회·정치권 “피해자 책임 전가 위험”·여당서도 질타 목소리 “언행 조심했어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을 미리 배치했다고 해도 이태원 참사를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주무부처 수장으로 책임 회피성 발언을 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31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이 장관은 전날 참사 관련 브리핑에서 “예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었다”면서 “경찰·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날 31일 오전 서울 중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고 당일인 지난날 29일 서울 곳곳에서 시위가 열려 경찰 병력들이 분산됐던 측면이 있다고도 했다. 당일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진보 진영의 집회에 경찰 병력이 투입돼 이태원 일대에는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경찰이 참사 당일 투입했다고 밝힌 인원은 137명으로 수사 50명, 교통 26명, 지역경찰 32명 등이다.

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이태원 일대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

상된 상황에서 경찰·소방의 적절한 배치가 이뤄진 것이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거리두기가 해제된 첫 핼라윈을 맞아 10만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고, 실제 지하철역 집계가 경찰의 예상 인원보다 많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장관의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었다’는 판단과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행사 주체가 없었던 만큼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했던 상황인데, 책임 회피성 발언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성

명을 통해 “이 장관의 단정적인 발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책무를 희석시킬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참사의 책임을 희생자들에게 전가할 위험이 있다. 참사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있어서는 안 될 부적절한 발언을 한 이 장관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여당 등 정치권에서도 이 장관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국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동참하는 모습이 아닌 형태의 그런 언행은 조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람이 10만명 모인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교통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을 위해 통행을 제한하거나 현장에서 사람이 밀집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소홀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너무도 슬프고 참담한 심정인데 해당 장관의 발언 한마디가 이런 논란을 빚게 하는 것은 유감스럽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뉴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날 31일 5층 접견실에서 산림청(청장 남성현), 목재문화진흥회(회장 이남호)와 학교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학교 목재 이용 활성화 ‘한뜻’

### 전북도교육청·산림청·목재문화진흥회, 업무협약 체결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날 31일 5층 접견실에서 산림청(청장 남성현), 목재문화진흥회(회장 이남호)와 학교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도교육청은 학교 시설의 국산 목재 이용을, 산림청은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을, 목재문화진흥회는 학교 시설에 사용된 목재 제품의 탄소저장량 측정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협약 내용으로는 △학교시설의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시설 조성을 위한 협력 △전라북도지역 목재 제품 기술개발 및 이용 확대를 위한 협력 △기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상호발전과 우호 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이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한 국산 목재의 이용 확대를 우리나라 산림 부문 탄소저장량 증진과 건축 부문 탄소배출량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탄소저장고로 인정하는 목재를 학교

시설에 이용하면 철근·콘크리트 등 제조 과정에서 다량의 탄소를 배출하는 타 재료 대비 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어 기후 위기에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면적 100㎡(약 30평)의 목조건축 조성 시 총 40톤의 탄소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400㎡의 소나무숲이 약 6년 6개월간 흡수하는 양과 같다.

이와 더불어 목재로 실내 환경을 바꾸면 숲속에서 느낄 수 있는 피톤치드가 일정량 공기 중으로 방출되며, 피부질환 및 호흡기질환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거석 교육감은 “기후위기 시대의 학교 교육시설은 사람과 자연, 그리고 환경이 서로 조화롭게 공생할 수 있는 친자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학교 공간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고, 국산 목재 우선 사용으로 학교에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고부가품종 ‘해삼’ 무상방류

### 전북도 수산기술연구소, 군산·부안 연안에 어린 해삼 30만 마리

전라북도가 연안 내 수산자원 증강과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고부가품종인 해삼을 무상으로 방류한다.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는 수산자원 증강과 지속적인 어업생산을 통한 도내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11월 1일, 2일, 4일 사흘 동안 군산 및 부안 연안에 직접 생산한 어린 해삼 30만

마리를 무상으로 방류한다고 밝혔다. 이번엔 생산된 어린 해삼은 약 5개 월에 걸쳐 육성 관리해 1g 이상까지 성장시킨 후 전염병 검사까지 마친 건강한 해삼이다.

해삼은 우리나라 전 해역에 분포하고 있다. 전북도의 해삼생산량 및 생산금액은 2021년도 기준 생산량 155

톤, 생산금액 31억 원으로 도내 어업인의 소득에 기여하고 있다.

‘바다의 인삼’이라고 불리는 해삼은 갈슘, 철분 등의 무기질이 풍부한 고급 건강식품이다.

특히, 해삼의 성분 중 콘드로이틴은 세포 손상을 막고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 노화 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또 다른 성분인 히알로데인은 체내의 면역기능을 향상해 항암작용을 한다. 혈액이 응치는 것도 방지해 혈압 안정에 효과가 있다.

또한, 입 주위의 축수로 해저의 모래나 펄을 섭취해 유기물만을 소화 흡수

한 다음 깨끗한 모래와 펄을 배출하는 바다의 대표적인 정화생물로 연안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며, 활동량이 적어 방류 효과가 우수한 품종이다.

도 서재희 수산기술연구소장은 “우리 연구소의 지속적인 종자 방류는 연안 수산자원 회복과 도내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도 어업인의 어업생산을 위해 효과적인 종자 방류를 추진하고 도내 환경에 맞는 품종을 연구해 도내 어업생산량 향상에 대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 전북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방선거 후보자 고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 A와 B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 A는 본인과 배우자의 채무 2억 6천여만 원, 후보자 B는 본인과 배우자의 보험 등 2억1천여만 원을 누락하여 신고하였고,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및 선거공보를 통해 공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재산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 등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 앞으로도 엄중 조치할 것이라 밝혔다. /김경수 기자

## 새만금 개발사업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에 공유

### 스마트 수변도시·간척박물관 모습 3차원 가상 제작 제공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규현)은 새만금의 개발상황을 알고 싶어하는 국민을 위해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이하 브이월드)’에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한 공간정보를 서비스 계획을 알렸다.

이용방법은, ‘브이월드(https://map.vworld.kr)’ 접속 → 홍보관 → 새만금 개발사업 → 원하는 사업정보 선택 하면 해당 자료를 볼 수 있다.

특히 이번엔 새만금의 첫 도시로 개

발 중인 ‘스마트 수변도시’와 간척을 주제로 건축 중인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의 모습을 3차원 가상 공간정보로 제작해 높은 호응이 기대된다.

오육연 정보민원담당관은 “빠르게 개발 중인 새만금의 현황을 국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사업 지역의 다양한 공간정보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서비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